

창조행정 기틀·수출도시 체질 개선...총인시설 등 '비리' 오점도

오는 30일로 임기를 마감하는 민선 5기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일 하나는 원 없이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0년 7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시정 목표로 내걸고 출범한 강운태 호(號)는 '민주·인권·평화도시', '문화콘텐츠 허브도시',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을 3대 축으로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강 시장은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호남 확대'속에서도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새 야구장 건립,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체질개선 등 광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했다.

또한, 열세막은 하마로 불리던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 승소는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투자

민선 5기 광주시정 결산

야구장 건립·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수영대회 유치·2순환로 승소 성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강 시장이 강조해온 창조행정의 백미로 꼽힌다.

◇기존 행정을 깬 창조행정 돋보여=광주시의 민선 5기 4년은 창조행정이 그 중심에 있다. 광주시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을 조성하면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초로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해결해 국

내는 물론 세계 스포츠 대회 관계자들로부터 창조적인 방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 광주 야구팬의 숙원이었던 새 야구장(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을 국비와 지방비, 기아자동차 등 3자 부담으로 건설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도 창조행정의 성과 중 하나다. 민선 5기 들어 군 부대와 협상을 통해 무등산 정상에 45년 만에 개방한 광주시는 지난 2012년 12월 무등산을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다.

◇인권 대표 도시 광주 전 세계에 알려=전국 최초로 광주인권 현장을 제정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해 민주·인권·평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인권지표 개발 노력 등은 민주화 도시

광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역사 왜곡·훼손 세력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선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체질 개선=광주가 지난 4년동안 생산도시에서 수출 주도형 생산도시로 도약했다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이는 없다. 광주는 실제 광산업, 자동차산업, 전자산업 등 기존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 2013년 159억달러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국내 제2의 도시 부산의 수출액(133억달러)과 대구(70억달러)를 앞지른 것으로, 광주의 수출 저력을 국내에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광공업생산증가율 6.8%, 취업자 수 증가율 3.4%, 수출증가율

12.3% 등을 기록하며 3대 분야 특·광역시 1위에 오르는 성적도 냈다. 또 수치상이긴 하지만 민선 5기 동안 일자리 10만5000개를 창출했고, 국내기업 70개, 해외기업 318개 4조7000억원 상당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총인시설 비리 등은 '육에 티'=강운태 광주시장은 재임기간 자신의 비리는 없었으나 총인시설 비리, 캠코 비리 의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조작 등으로 시정이 5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강 시장은 야권의 중심도시인 광주가 정부의 타깃이 돼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일부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시민들의 머릿속엔 부정적인 인식이 각인됐다.

이는 결국 민선 6기 시장 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창국 총리후보 사퇴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8) 할머니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녹색성장실 폐지...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역점

추진남지사 당선자 직제개편 방향 밝혀...인사·정책 동부권 배려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전남의 '인구 늘리기'와 동부권 배려 등을 반영한 직제개편안을 다음달 11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해 6기 도정을 서둘러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자는 17일 '민선 6기 전남지사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직제 개편과 상관 없는 부단체장 인사를 한 뒤 개편 후 본격 인사를 할 지, 아니면 직제 개편 후 모든 인사를 한 뒤에 할 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 개선 등은 부지사 직속으로 하고, 이명박 정부 당시 명칭인 '녹색성장정책실'은 해체한 후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각기 담당하는 국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 등 중앙정부의 직제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은퇴도사당당, 행복마을과 등 분리돼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실·과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당선자는 "부지사로서 몇 군데에 부탁을 해줬는

데 아직 답이 없다"며 "백지상태에서 부지사의 걸러를 감안해 그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남도의 업무가 양적오로만 팽배할 뿐 효율적이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업무도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할 필요를 언급하기도 했다. 동부권 제2청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직제 개편을 보면 (동부권을 어떻게 중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인수위원회 인선 등도 이 같은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연의 전남도청"과 관련 그는 지금 사라지고 있는 전남의 활기, 매력, 온정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활기는 산업, 인구, 일자리 정책, '매력'은 문화, 관광, 예술, 스포츠, '온정'은 복지, 인권, 다문화, 배려 정책 등을 통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먼저 '활기'에 중심을 두는 도정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부지사로서 몇 군데에 부탁을 해줬는"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도 문창국 사실상 사퇴 촉구

임명동의안 제출 연기...본회의 투표까지 가도 통과 어려울 듯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서가 17일 오후 7시까지 국회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지권 일각에서 '자진사퇴설'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친박(친박근혜) 좌장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일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 임명동의안이 제출된다 해도 국회 관문을 넘기까지는 각종 난관이 산재한 상황이다.

일단, 1차 관문인 인사청문특위 단계부터 전망은 녹록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지휘봉을 잡고 혹독한 '검증'에 나선다. 특히,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 가능성은 만무한 상황이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직

권상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가능성은 낮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청문특위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큰 현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인준안이 '최종판문'인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 기류가 크기 때문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과반이 될 문 후보자 인준안은 국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하게 된다. 현재 국회 재적은 총 286명으로, 새누리당이 149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무소속인 정 의장을 포함하면 문 후보자 표는 150명이 된다.

야당(새정치민주연합 126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5명) 소속 의원들의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할 때 144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인준안은 가결된다.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국회 재적이 284명으로 줄어들어 반란표가 5표만 나오면 인준안 처리는 불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朴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전부터 '논문 비위' 의혹

문창국 역사관 논란 이어 김명수·정종섭·송광용 논란 휩싸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7일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란과 연결돼 의혹이 터져나온 것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교수 출신인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 송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직업적' 성취와 관계가 있는 논문과 연결돼 있는 공통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안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즉 '자기표절' 의심이 제기됐다. 실제 부풀리기

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이다.

송 수석의 경우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나온데 이어 자신이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은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학술지에 등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이처럼 이들 모두 교수의 본분인 연구 실적을 판가름하는 논문에서 의혹이 나온만큼 도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후보자와 송 수석의 경우 향후 내각과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이끌 '쌍두마차'라는 점에서 논문비위 의혹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의 과거 행적이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열어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전국여행사 발행 가능)

꽃보다 누나 따라 잡기 서유럽 / 터키일주/발칸반도/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일주 9일 **2,590,000~**
서유럽 5개국 10일 **3,290,000~**
이스탄불, 스페인, 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W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90유로), 세금착취

드넓은 초원과 계곡을 만날 수 있는 중국 내몽고 여행!! 출발일: 7/4,11

무안-북경 내몽고 사막+초원투어 5일 **1,000,000**
불포함: 가이드&기사(40,000원), 사막오토바이(60유로/1인)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계 (VN항공)총6회
7/30, 8/03, 8/07, 8/11, 8/15, 8/19

관광 다낭, 호이안, 후에 3박 5일 **999,000~**
준특급 **1,099,000~**

유양 다낭/호이안 3박 5일 (호핑투어), 노티프, 노움선 **1,290,000~**
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 가이드(팁성인40\$)

[추석연휴] 무안-대만 전세계! 9/6(토), 단1회! ALL 포함 조건!!!

실속 대만, 야류, 화련 3박4일 **1,290,000**
품격 대만, 야류, 화련 3박4일 **1,390,000**

아시아나항공으로 무안-북경 태항산 4일 **899,000~**
떠나는 북경 태항산 무안-북경 태항산 5일 **999,000~**

여름휴가철 카메라야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류슈 3박4일 **339,000**
출발일: 6/30/7/12/26/7/28/7/30/8/2/8/13
※불포함 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탑벌도, 주벌(목, 구름발은 요건인상됩니다)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료칸 숙박 일본 류슈 3박4일 **499,000**
출발일: 6/30/7/12/26/7/28/7/30/8/2/8/13
※불포함 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탑벌도

카메라야 대마도 힐링투어 2일 (부산, 출-도착) **239,000~**
북해도 품격 초특가 (단1회 7/21)(광주, 출-도착) **1,029,000**
ALL포함

카메라야 일본 류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79,000~**
출발일: 6/30/7/12/26/7/28/7/30/8/2/8/13
※포함사항: 왕복항공권, 렌탈카, 가이드, 차량,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탑벌도, 선내식사

카메라야 [세포함] 일본 10대 명산 구중산 철쭉 트래킹 4일 **540,000**
출발일: 7/12 ※광주 출/도착, 전통료칸+후쿠오카 시내 특급호텔(여름휴가철)

카메라야 일본 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 숙박!! 류슈 3박4일 7/26/7/30 출발 확정 **569,000~**

항공 특급호텔 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여권 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탑벌도, 유류할증료

무안에서 출발하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여행!!

실속 연길, 백두산(북파), 용정, 도문 4일 **999,000~**
품격 연길, 백두산(북파), 용정, 도문 4일 **1,089,000~**

실속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4일 **1,05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4일 **1,159,000~**

실속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도문 5일 **1,089,000~**
품격 연길, 백두산(서파+북파), 용정, 도문 5일 **1,199,000~**

※불포함사항: 유류세(W93,000), 중국단체비자(W33,000), 가이드/기사팀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100,000), 렌터카, 유류할증료(W24,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100,000), 렌터카, 유류할증료, 유류세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불포함: 숙박(숙사기준)

홍도, 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상보험 1억원, 국내항공 500만원), 관광진흥회가입(기),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지역별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권 계약금 결제

※ 예약시 계약서(현금결제) 및 항공권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세요.

※ 계약일(출발,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적관료, 각종 비자비용 별도)

※ 항공편은 여객기 편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인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